

조계종 11대 종정 3월 11일 결정될 듯



◁법전 스님



▷범룡 스님



▷서웅 스님



▷송산 스님



▷송담 스님

법전·범룡·서웅·송산·송담 스님 물망

“4월 중순경 추대식 봉행할 수 있을 것” 급하지 않아... 시간 갖고 만장일치 선출

조계종 원로회의가 3월 11일 (예정) 총무원 회의실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져, 11대 종정추대에 대한 관심이 높게 일고 있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원로회의 의원스님들이 지난 17일 해암 스님 49세 법회에 참석한 후 모임을 갖고 3월 11일 원로회의를 연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원로회의가 열려 종정추대 합의가 무난히 이뤄질 경우 4월 중순경 추대식을 봉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이번 원로회의에서 종정추대합의가 결정될 지는 미지다. 원로회의 의원인 한 노스님은 “3월 11일 원로회의 때 종정을 선출 하지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종정 선출이 다급한 것도 아닌 만큼 시

간을 갖고 천천히 검토를 거쳐 만장일치로 추대하자는 의견도 많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위기때문에 조계종 종정선출과 관련 ‘사전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조계종 11대 종정후보로 거론되는 스님은 법전(해인총림 방장), 범룡 스님(전계대화상, 서웅교

보총림 방장, 송산(화계사 조실), 송담(화선원 원장)스님 등이다.

법전 스님(77)은 조계종의 종풍을 확립한 봉암사 결사에 참여했고, 성철·해암 스님으로 이어지는 해인사의 법통을 이었다. 원로회의 안에서도 가장 많은 지지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범룡 스님(88)은 오랜 봉암사 수행을 하여 ‘고요한 바다’ ‘정

림결백한 성품’ ‘철저한 수행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닐 만큼 성품이 원만하여 현재 종단의 안정적인 분위기와 맞닿는 평이다.

서웅 스님(91)은 수좌들로부터 믿음에 답해줄 수 있는 선승으로 꼽힌다. 재가불자들과 수좌 세력기반이 유독 넓다는 것이 주목된다.

송산스님(75)은 경허·만공 스님의 법맥을 잇고 해외에서도 높

은 추앙을 받고 있다. 범어문종과 함께 우리나라 양대 문종이면서 종정을 한번도 배출하지 못한 덕송문종의 지지를 받고 있다.

송담 스님(74)은 10년 동안 묵언을 하여 전강선사의 인가를 받은 ‘묵언스님’으로 불린다. 수좌계에서 ‘북대 송담’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남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송담스님은 수년 전 봉암사 조실 추대를 사양하기 위해 자취를 감췄을 정도로 종단에 나오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

한편 조계종 종헌에 의하면 종정추대회의에는 원로회의 의원스님(19명)들과 총무원장, 종회의장, 호계원장 등 22명의 스님이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인도불교 부흥에 전념”

‘정토회’ 대표직 물러난 법륜 스님



10여년간 일과 수행의 서원공동체 ‘정토회’를 이끌어온 법륜 스님이 제 3차 1000일 결사회향을 끝으로 (사)JTS, (사) 좋은 벗들, (사)불교환경교육원 등 일체의 대표직 소임을 내놓았다. 스님은 △북한난민 지원 등 통일사업 △‘쓰레기 제로운동’ 등 환경운동 △인도빈민 구호 등 해외 구호사업 등 불교계 NGO의 선구자 역

려운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또 인류 문명의 대안 찾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보드가야 근처 수자타가 살던 집터부근 1만여평을 구입해 성지 순례객들이 명상을 할 수 있도록 명상센터를 건립할 것입니다. 절대 한국불교를 그곳에 심지는 뜻이 아닙니다. 근본불교를 알리는데 주력하는 것입니다.”

◆인도불교 부흥운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굶주리는 아이들을 먹이고, 병든 아이들을 치료하고, 배우지 못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계획입니다. 또 의료 마을개발사업도 확대됩니다. 비하르주 동게스오리 지역뿐만 더 넓은 지역에 교육과 의료시설을 확충할 것입니다. 마을 개발사업으로는 주택개량과 마을금고 설립, 도로건설, 공동구판장 설치 등을 통해 자립적인 지역농촌경제를 만들 것입니다. 이런 후에 인도인들에 불

“교육·의료·구호시설 확충

명상센터 건립, 불법 은혜 갚을 터”

할을 하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스님은 정토회원들의 수행지도와 인도 불교 부흥사업에 전념할 계획이다.

◆지난 10여년 간 정토회는 일과 수행의 공동체 건설에 진력했습니다. 그간 정토회 활동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정토회는 88년 창립이후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이웃의 아픔에 동참해, 복지·통일 환경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누구나 실천수행을 통해 열반과 해탈의 작은 체험을 얻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해외중에서도 특히 인도불교 부흥에 주력하는 이유는.

“인도불교를 부흥시키려면 수많은 전법사가 인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에 대한 불교포교는 10년 전 인도빈민 구호사업을 할 때부터 원했던 일입니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성지순례를 하면서, 파괴된 성지와 굶주린 인도 어린이를 보았습니다. 불법 만난 은혜를 꼭 갚기 위해 성지거구기, 불교 전하기, 어

교경전을 나누어주고 불교아카데미를 열어 인도 지식인들에게 불교를 가르치는 것은 물론, 석가족 사찰 및 불교단체 지원, 5월 27일 인도인 5만에 대한 수계식도 예정돼 있습니다.”

◆새 체제가 들어선 정토회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까?

“젊은 세대가 잘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신도들도 이제는 더 이상 후원자가 아니라 수행을 통해 자신을 정화하고 사회실현을 통해 사회를 정화하는 실천불교운동을 전개해 나가리라 확신합니다.”

◆한국불교가 변화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지요.

“현대사회의 과제에 답답을 줄 수 있는 희망의 불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동안 불교는 산적한 내부문제 때문에 남한 사회의 불평등 해결, 남북통일 달성, 북한기아난민 지원은 물론, 세계종교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의 근본가르침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세간에 물들어 버린 상태로는 세상을 정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행과 사회적 실천을 병행해, 자신과 세계를 함께 변화시켜야 합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동국대 불교학과 교원 임용 또 무산

동국대가 2002학년도 불교학과 신규 교원 임용 과정에서 또 다시 논란이 발생해 5년째 교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번 학기 불교학과 교원 임용 분야는 서울캠퍼스 불교학과 한국불교사, 유식학, 인명학 그리고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초기불교와 선학과 중국 선사사 등이다. 그러나 21일 열린 이사회에 지난 해 신선했던 인명학 분야 우제선 씨만 상정돼 임용되고 나머지는 보류됐다.

이번 임용 과정에서 한국불교사와 유식학은 논란이 발생해 이사회에 상정조차 못했다.

한국불교사 경우 학과 추천에서, 유식학은 면접에서 각각 종합평가의 순위가 바뀌자 일부 지원자들이 이의를 제기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캠퍼스 초기불교(2명)와 중국선사사(1명)은 지원 미달(3배수)로 심사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식학과 한국불교사의 경우 수년째 교원을 임용하지 못해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유식학은 지난 97년 오형근 교수가 정년 퇴임한 이후 6년째, 한국불교사는 지난 98년 김영태 교수가 정년 퇴임한 이후 5년째 이

내·외부의 문제로 인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빠른 시일 내 전공 교수를 임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불교학과 교원 임용이 하마다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유식학·한국불교사 수년째 공백 지속 학생들만 피해... ‘채용 원칙’ 지켜져야

같은 상황은 되풀이되고 있다. 현재 불교대학원의 경우, 정년 퇴임한 김영태 교수, 학부의 경우 강사들이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자들의 연구활동에도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 대학원생은 “동국대학이 한국불교 진흥을 위해 설립했는데

것은 지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일부 지원자의 사전 내정설 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게 교계의 시각이다.

이번에 응시했던 한 지원자의 경우 “보편적인 원칙이 무시되고 몇몇 인사들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불교학과 교수 임용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학교의 한 관계자는 “우수한 교수를 채용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다”며 “이번처럼 공명정대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학과 교수들의 의견 불일치와 교수 임용과정에 학내외 관계자들의 개입도 교수임용이 파행에 이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일마 전 동국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석에서 “다른 학과와는 달리 불교학과의 교수 임용 문제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불교학과 교수 임용 파행의 원인은 특정 인이나 특정사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란 얘기다.

재단과 학교 그리고 관련 학과가 불교학 발전을 위해 보다 객관적 시각을 가질 때 불교학과 교수 임용 파행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해오전사기회(KOBA)
 KOBA (Korean Organization of Buddhist Art)는 현대불교신문화 산하 예술기획사로 해외 전시, 번역, 출판 등을 통해 한국 불교의 고갱이를 알리고자합니다. KOBA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전시회를 기획중에 있으며 현재6월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포교에 관심 있고 역량 있는 예술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조원희 실장 (전화: 02-737-8881, E-mail: whcho@buddhapia.com)

아미타불을 친견하고 극락세계를 다녀온

- 중국 관정크스님 초청법회 및 출판기념 대법회 -

“실제로 내가 서방극락세계에 다녀온 시간은 대략 스무시간 정도라고 생각되었는데, 다시 인간세상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6년 5개월 지나있었다”

《극락은 있다》 본문 중에서 -

화두 일념으로 마음자리를 찾아가는 화두선 처럼, 아미타불 일념으로 명심견성(明心見性) 하는 정토선(淨土禪)으로 불자님을 초대합니다. 선과 염불을 회통한 중국 관정크스님 초청법회 및 출판기념 대법회를 개최하오니 성불 인연 맺기를 기원 합니다.

- ☞ **모이는 날** : 2002년 3월 2일(토) 오후 1시
- ☞ **모이는 곳** : 불교방송 3층 대법당
- ☞ **주관** : 정토 자성염불도량 석문사
경북 상주시 화북면 입석리 옥양동
전화 : 054-536-4869
주지 권룡·권승 (거제도 오송암)
- ☞ **문의** : 상적암 061-755-6442, 011-554-6443



관정(寬淨)크스님

참선 선정에 들어 관세음보살의 인도로 6년 5개월 동안 天中 나한동·도리천·도솔천 그리고 극락세계 구품연대를 두루 체험하고,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로부터 정토선 수행법을 부촉 받은 우리 시대의 선지식!

크스님은 현재 중국 복진성 적수암사에 주석 하시면서 미국·캐나다·한국 등 전세계 21개국을 순회하며 법을 전하고 있다.

중국 관정크스님의
6년 5개월 극락체험기

화제의 선간



석관정 지음 | 대주 옮김
신국판 | 값 8,000원
도서출판 붓디의 마을 전화 02-722-0292~3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50번지 갤러리상 405호